lib.goe.go.kr/gg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21. 겨울호 | Vol. 59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책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 사서들이 협력하여 발간하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도서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21. 겨울호 | Vol. 59

발행인 구명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편집장 이승연 **편집위원** 이진형, 김은, 김봉화, 김석주, 김세희, 김용민, 김윤혜, 복은솔, 안선영, 이노경, 이미경, 이정하, 현유정
전화 031-240-4081 **팩스** 031-245-3681 **홈페이지** lib.goe.go.kr/gg **디자인** (주)우진디피피

04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문학 | 절대로 예쁠 리가 없잖아! | 엄마의 엄마 | 마구 눌러 새로고침
| 이솝 우화, 거리 두고 읽기
|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인문 | 없던 오늘 | 바이러스 철학을 만나다 | 쉬운 말이 평화
| 내 안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 | 사회를 달리는 십대: 경제 |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개정판)
과학 | 착한 소비는 없다 | 10대와 통하는 기후 정의 이야기
| 농담하냐고요? 과학입니다 | 텐 드럭스
| 곽재식의 미래를 파는 상점
교양 | 미래와 만날 준비 | 1페이지 미술 365 | 앤드 오브 타임
| 십대, 영화로 세상을 논하다 | 90일 밤의 미술관
교육 |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너에게 |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니? | 빅데이터 전문가 마스터플랜
고전 | 도덕경 | 수레바퀴 아래서
어린이 | 마스크 벗어도 돼? | 코로나 탐구생활 | 오케스트라 | 상처놀이
| 모모 |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 차대기를 찾습니다
| 긴긴밤 | 너저분 선생님과 깔끔 선생님
|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48 **한 책 깊이 읽기**
조슈아 트리

50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
책-영화 함께 읽기

52 **친구가 권하는 책**
의정부 독서동아리 친구들

56 **상황별 책이야기**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 금융

59 **꿈을 만들어 가는 진로독서**
공학 계열

62 **교과서 속 책이야기**
초등 5~6학년 〈실과〉

65 **책 읽는 스승 릴레이**
「논어」를 읽고 | 시흥매화고 유상철 선생님

68 **학교도서관 현장을 가다**
북큐레이션, 나를 완성해가는 독서생활 더하기

70 **가족 웹툰**
별 | 이규찬 작가

72 **경기교육도서관 소식**
성남 · 화성 · 김포교육도서관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참여대상

경기교육도서관 및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중앙 · 평택 · 광주 · 여주가남 · 포천 · 김포 · 과천 · 성남 · 화성 · 의정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목적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독서정보자료 제공

자료분야

문학 · 인문 · 사회 · 과학 · 교양 · 교육 · 고전 · 어린이 (8개 분야)

자료선정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간된 신간자료(고전 제외)로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에 권장할 만한 도서

행복한 책읽기 | 속으로

추천기간 : 2021.7.20.~ 2021.10.26.

순서	분야	서 명	저자명	출판사	대상
01	문학	절대로 예쁠 리가 없잖아!	이명랑	애플북스	청소년
02		엄마의 엄마	스즈키 루리카	놀	일반
03		마구 눌러 새로고침	이선주 외	자음과모음	청소년
04		이솝우화, 거리 두고 읽기	이덕주 외	내일을여는책	청소년
05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안도현	창비	일반
06	인문	없던 오늘	유병욱	북하우스	일반
07		바이러스 철학을 만나다	박상욱	맘에드림	청소년
08		쉬운 말이 평화	최종규	철수와영희	청소년
09		내 안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니콜 르페라	웅진지식하우스	일반
10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김혜정	자음과모음	청소년
11	사회	사회를 달리는 십대: 경제	황정숙 외	우리학교	청소년
12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신지나	다른	청소년
13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용섭	퍼블리온	일반
14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개정판)	서윤호 외	다른	청소년
15	과학	착한 소비는 없다	최원형	자연과생태	일반
16		10대와 통하는 기후 정의 이야기	권희중 외	철수와영희	청소년
17		농담하냐고요? 과학입니다	최원석	북트리거	청소년
18		텐 드럭스	토머스 헤이거	동아시아	일반
19		곽재식의 미래를 파는 상점	곽재식	다른	청소년
20	교양	미래와 만날 준비	손화철	책숲	청소년
21		1페이지 미술 365	김영숙	빅피시	청소년
22		엔드 오브 타임	브라이언 그린	와이즈베리	일반
23		십대, 영화로 세상을 논하다	이임정 외	초록비책공방	청소년
24		90일 밤의 미술관	이용규 외	동양북스	일반
25	교육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너에게	바버라 오클리 외	북로그컴퍼니	청소년
26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백경자	이비락	일반
27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니?	심소정 외	이담북스	청소년
28		빅데이터 전문가 마스터플랜	theD마스터플랜하우스	더디퍼런스	청소년
29	고전	도덕경	노자	현대지성	청소년
30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민음사	청소년
31	어린이	마스크 벗어도 돼?	과학을 위한 여성 과학자모임	그레이트BOOKS	초등저
32		코로나 탐구생활	폴 드 리브롱 외	북멘토	초등중
33		오케스트라	아발론 누오보	찰리북	초등중
34		상처놀이	이나영	위즈덤하우스	초등고
35		모모	조나단 가르니에	북극곰	초등중
36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캔디스 플레밍	책읽는곰	초등중
37		차대기를 찾습니다	이금이	사계절	초등고
38		긴긴밤	루리	문학동네	초등중
39		너저분 선생님과 깔끔 선생님	파프리지오 실레이	맛있는책	초등저
40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최원형	책읽는곰	초등중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목록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홈페이지(lib.goe.go.kr/gg)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학 01



| 이명랑 | 애플북스
| 2021 | 168쪽
| 청소년
#외모 #고민
#자존감 #청소년문학

절대로 예쁠 리가 없잖아!

외모보다는 매력으로 승부를 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메시지

어느 때보다 자신의 외모에 가장 집중하게 되는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외모 걱정이 늘어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생활은 이러한 고민을 더욱 부추긴다. 이명랑 작가의 신작 「절대로 예쁠 리가 없잖아!」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외모 고민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한다. 학교 축제에서 '물의 정령 온딘'을 공연하게 된 현정이네 반에서는 여자 주인공 '온딘'역을 두고 친구들 간의 외모 비교가 시작된다. 주인공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외모일까? 주인공 선발을 위한 경선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미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당당하고 유쾌한 태도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것이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세희

문학 02



| 스즈키 루리카 | 놀
| 2021 | 248쪽
| 일반
#엄마라는이름 #가족
#태양은외톨이

엄마의 엄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엄마의 엄마,
뜨겁기도 따뜻하기도 한 태양 같은 삼대 모녀의 이야기

올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하나미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교복 구매를 걱정할 만큼 가난한 생활이지만 하나미와 엄마는 긍정적이고 씩씩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모녀 앞에 죽은 줄 알고 있던 엄마의 엄마가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난 외할머니는 담배를 문 해골 같은 얼굴에 뻔뻔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하나미는 학대당하고 버림받았던 엄마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다. 엄마와 엄마의 엄마, 그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이 책에 등장하는 하나미와 엄마,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모두 가족과 타인에 대한 '결핍'과 '상처'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우울하거나 비관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자기의 세계에서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밝고 따뜻하다. 잔잔한 이야기 속에 유머와 감동이 함께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 같은 소설이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이아란

문학 03



| 이선주 외 | 자음과모음
| 2021 | 176쪽
| 청소년
#10대의공간 #SNS
#게임 #학교

마구 눌러 새로고침

작가들이 써 내려간
십대들의 공간에 대한 단편소설

이 책은 '10대들의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진 단편집이다.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 아마 시대별로 그 공간들도 점점 변했을 것이다. 이 소설은 그런 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즘 10대들은 현실 공간인 학교와 집, 그리고 인터넷 공간인 SNS, 게임과 같은 가상공간들에서 시간을 보낸다. SNS에 빠져 결국 성형 중독이 된 방울이 이야기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K의 이야기, 저주 인형을 온라인에서 팔며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는 동훈이의 이야기 등 총 다섯 편의 단편소설이 요즘 10대들의 고민에 다가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빛 속에도 어둠이 있고, 어둠도 마냥 어둡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번데기 역할을 해서 우아한 날갯짓을 할 수 있다."라는 작가의 말이 나온다. 10대들의 힘든 시기가 언젠가는 우아한 날갯짓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노보형

문학 04



| 이덕주 외 | 내일을여는책
| 2021 | 240쪽
| 청소년
#이솝우화 #함정
#진실 #새로운관점

이솝우화, 거리 두고 읽기

한 걸음 물러서서...
이솝우화의 교훈 아래 숨은 생각 이해하기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이야기,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 '토끼와 거북이' 등 단순한 이야기 속에 세상 이치가 담겨 있는 이솝우화를 어렸을 때부터 추천도서로 많이 접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솝우화에서 전해지는 체념과 순종의 미덕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다르게 읽는 방법을 제안한다. 책의 구성을 보면 각각의 이솝우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다음, 자기 생각 나누기, 길잡이 등의 코너를 두어 이야기 속에 숨은 함정도 찾아보고 전혀 다른 시각의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에는 원래 이야기와 대비되는 새로운 이야기도 제시하여 비교하며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우화부터 읽어가다 보면 이솝우화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더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길정은

문학 05



| 안도현 | 창비
| 2020 | 108쪽
| 일반
#감성 #아름다움 #식물
#삶 #석정문학상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안도현, 8년 만의 아름다운 감성시집
작약작약 비를 맞는 식물도감을 보며 옳지, 무릎을 친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시인의 따뜻한 가슴이 8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에 그는 길가에 핀 꽃을 꺾지 말라고 한다. 그의 시집을 기다려온 독자들에겐 오랜만에 '안도현다운 시'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능소화 피고 지는 계절이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능소화가 피어날 때 악기를 걸어둘 수 있겠다는 시인에게 꽃과 나무는 마음을 걸어둘 수 있는 우주다. 안도현의 시를 읽다 보면 삶과 시의 경계가 없다. 그가 살았던 안동, 삼례, 전주, 진천에 대한 이야기는 삶 자체다. 어머니, 고모, 누이의 이야기는 시인의 목도이며 시 자체다. 특히 「식물도감」이라는 3부의 촌철살인과도 같은 짧은 시들은 독자들에게 '옳지'라는 감탄사를 쏟아 내게 한다. 이제 시인의 삶이 되어버린 식물들이 시인만의 시각으로 다시 그려지는 걸 보면 경이롭고 감탄스럽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강지

인문 06



| 유병욱 | 북하우스
| 2021 | 292쪽
| 일반
#카피라이터 #코로나이후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없던 오늘

전에 없던 오늘을 바라본 카피라이터의 시점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관통한 공감 키워드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앞다투어 그 극복방안과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카피라이터 유병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코로나19를 겪은 대한민국과 서울, 그리고 각각의 개인에 대해 살펴보며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건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 사람들 사이의 관계, 좋아하던 여행과 일상의 상실, 그 와중에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 등을 섬세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느린 관찰이 보여주는 세상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지금까지 겪은 많은 제약들은 오히려 일상과 삶에 대한 감사가 늘어난 오늘을 안내하며 힐링으로 이끄는 책이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한은경

인문 07



| 박상욱 | 맘에드림
| 2021 | 248쪽
| 청소년
#자유와통제 #경쟁과공존
#성장과분배 #혐오와환대

바이러스 철학을 만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원주민 바이러스와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그의 숙주 인간의 공생시대

전쟁도 천재지변도 아닌데 학교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모일 수도 없으며 외국으로 여행도 할 수 없는, 근대화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재난인 코로나19.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정체도 불분명하고, 강한 전파력과 적응력으로 종의 지속을 위해 숙주를 동물에서 인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변신과 적응의 귀재가 코로나바이러스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대적 혐오와 갈등을 바이러스의 삶을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철학적 성찰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현유정

인문 08



| 최종규 | 철수와영희
| 2021 | 248쪽
| 청소년
#우리말 #맞춤법 #쉬운말

쉬운 말이 평화

평화를 위한 쉬운 우리말 쓰기

하늘 · 상천 · 上天 · 창극 · 蒼極 · 창천 · 蒼天. 이 낱말 중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대부분 '하늘'이라는 낱말을 쉬운 말로 꼽을 것이다. 글쓴이는 쉬운 말이란 우리가 서로 즐겁게 생각을 나누도록 돕는 말이라고 한다. 쉬운 말로 생각을 나눈다면 다툼이나 싸움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책 제목을 「쉬운 말이 평화」라고 지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를 표현한다. 말은 마음에 심은 씨앗이라고 한다. 우리가 거친 말, 나쁜 말을 쓴다면 우리 마음은 나쁜 씨앗이 있고,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쓴다면 우리 마음에는 아름다운 씨앗이 있는 것이다. 사전에 나오는 낱말은 아니지만, 글쓴이는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영어 등을 쉬운 말로 바꿔서 써보자고 한다. 청소년 대신 푸름이로, 시너지나 동방 상승 대신 서로좋다, 다좋다, 모두좋다 등으로 새롭게 써보자고 한다. 처음 쓸 때는 어색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한자보다 쉽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하루쯤은 푸름이들이 무심코 쓰는 줄임말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김석주

인문 09



| 니콜 르페라
| 웅진지식하우스
| 2021 | 416쪽
| 일반
#심리치료 #인간관계
#마음치유 #트라우마 #내면아이

내 안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외로움과 무력감, 우울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치유의 책

마흔살이 된 딸이 일흔의 노모와 통화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싸우게 된다. 뒤돌아서 후회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전화만 받으면 어느새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어릴 적 상처가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로 여전히 괴롭다면 속는셈 치고 이 책을 읽어보자. 저자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치유의 길로 당신을 안내해 줄 것이다. 겉으로 완벽함을 유지하면서도 서서히 안으로 무너져가게 만든 오래된 상처로 가득한 내면아이와 용기 있게 화해하는 법을,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자기 고백과 수많은 실례를 통해 보여준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을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이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안희

인문 10



| 김혜정 | 자음과모음
| 2021 | 200쪽
| 청소년
#위로 #충고 #성장 #응원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십대에게 보내는 따뜻한 충고와 응원

이 책은 강연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서른아홉의 작가가 십 대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청소년기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만큼 힘든 십 대를 보낸 작가가 직접 느끼고 깨달은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때로는 위로와 조언을,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준다. 공부와 시험, 친구와 인간관계, 감정조절, 자존감 등 강연에서 많이 질문받았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하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담겨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너를 응원할게. 네가 누구보다 자신을 많이 좋아하길... 스스로를 많이 아껴주길." 누구나 한번은 지나가야 하는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따뜻한 책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미진

사회 11



| 황정숙 외 | 우리학교
| 2021 | 196쪽
| 청소년
#청소년경제 #빅데이터
#젠트리피케이션

사회를 달리는 십대: 경제

기본소득, 공유경제, 빅데이터, 암호화폐,
언택트, 젠트리피케이션
청소년이 알아야 할 6가지 경제 이슈 안내서

'기본소득, 공유경제, 빅데이터, 암호화폐, 언택트, 젠트리피케이션' 말만 들어도 어렵다. 분명히 어디에선가 보기도 하고 들어도 봤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 이슈를 쉽고 명쾌한 이야기로 풀어놓은 책이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학교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기 어렵고, 인터넷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이 책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해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고, 설명 끝에 핫&이슈 및 찬성 vs 반대의 의견을 모두 제시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주제 선정 이유를 '현재성'과 '영향력' 두 가지를 꼽았다. 이 책으로 학생들이 현재의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권효진

사회 12



| 신지나 | 다른
| 2020 | 224쪽
| 청소년
#빅데이터 #직업
#4차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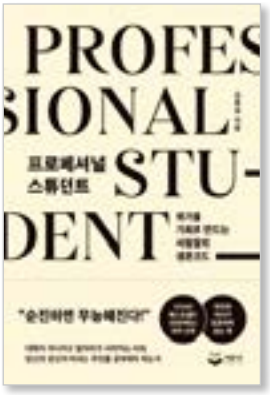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나의 흥미와 가능성을 찾아보자

2016년 봄,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국을 보고 난 후 대중은 놀라기 시작했다. 최정상 바둑기사의 패배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대체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다. 이 책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진로 찾기'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 로봇공학자, 웨어러블 기기 디자이너, 도시 재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 미래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플랫폼 기업이 모든 것을 흡수해가고 있는 이때, 나의 미래는 흡수 당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것인가? 그 파도를 타고 더욱 비상할 수는 없을 것인가?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노경완

사회 13



| 김용섭 | 퍼블리온
| 2021 | 336쪽
| 일반
#공부 #교육 #직업 #위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공부하고 성장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달라짐과 동시에 산업 ·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져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 직장인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 책은 앞으로 어떤 교육과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Professional Student)는 원래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쌓아가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지금은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시로 공부하고, 성장하며 진화하여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을 말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가 노동력을 대체하며 일자리가 급감하는 시대에 생존할 사람은 프로페셔널 워커이면서 동시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서 박현정

사회 14



| 서윤호 외 | 다른
| 2021 | 256쪽
| 청소년
#헌법 #사회문제
#가치관확립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개정판)

관습과 편견에 대한 고민거리를 법에 기초하여
생각하도록 돕는 헌법 사용 설명서

이 책은 중학생이면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회적 문제를 헌법 연구 동아리 '나비'에서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동아리 토론에서는 단순 흥미가 있는 큰 주제 뿐만 아니라 큰 주제의 꼬리를 무는 소주제들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법리학적 시선으로, 헌법 연구동아리 중학생들이 토론으로 풀어가는 점이 인상적이다.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지만 깊게 생각해 보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법과 연관성, 밀접성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법이란 절대적이고 변화가 거의 없다는 편견을 없애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정승균

과학 15



| 최원형 | 자연과생태
| 2020 | 274쪽
| 일반
#소비 #환경 #생태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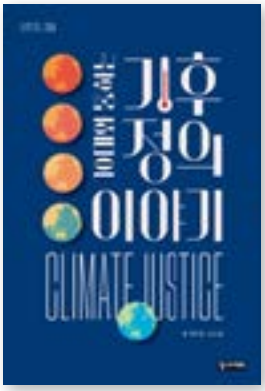
착한 소비는 없다

무분별한 소비 습관에서 비롯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착한 소비는 없다」는 상품 소비, 에너지 소비, 마음 소비, 자연 소비 등 네 가지 소비를 주제로 41개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스터섬의 이야기 '이스터섬은 과거일까, 미래일까?'부터 독자에게 많은 고민과 통찰을 하게 한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의 이스터섬은 과거에는 울창한 숲과 풍부한 식생의 비옥한 곳이었다. 그러나 자원을 쓸 줄만 알고 지키거나 가꾸지 않은 결과, 지금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만 남아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지구 곳곳의 이상 기온, 폭염과 한파, 홍수, 황사, 미세먼지, 온실가스, 물 부족, 식량난 등은 모두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에 따른 환경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작고 수고스럽지만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 방식의 실천이야말로 미래세대에게서 빌려온 자연과 지구를 온전히 되돌려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한상숙

과학 16



| 권희중 외 | 철수와영희
| 2021 | 204쪽
| 청소년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정의

10대와 통하는 기후 정의 이야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이야기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급변하면서 '기후 위기', '기후 정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후 변화로 폭염, 태풍, 가뭄 등이 심해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식량 위기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저자는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를 넘어 왜 기후 위기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기후 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는 선진국에서 많이 배출하는데, 왜 그 기상재난인 가뭄, 폭우, 폭염 등은 위생시설과 공급체계가 부족한 가난한 나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기후 부정의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줄이려는 기후 정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그리하여 어느새 저자의 이 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노경아

과학 17



| 최원석 | 북트리거
| 2021 | 232쪽
| 청소년
#농담 #과학 #호기심
#질문 #기상천외

농담하냐고요? 과학입니다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질문에 숨은
위대한 과학 이야기

사람이 총알보다 빨리 달린다면? 삶은 감자와 튀긴 감자는 왜 맛이 다를까?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이 나타날까? 태양이 2개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 언뜻 보면 개구쟁이들의 엉뚱한 상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현직 과학 교사인 저자는 학생들의 이러한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황당한 질문이라도 그 속에 과학이 숨어 있으며, 그런 질문에서부터 위대한 과학이 시작된다고 한다. '엘사의 얼음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와 같은 엉뚱한 질문에도 에너지 보존 법칙, 냉동인간, 열과 화학반응에 대해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설명의 끝에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간단히 곁들여 부담 없이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엉뚱한 상상과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최선주

과학 18



| 토머스 헤이거 | 동아시아
| 2020 | 380쪽
| 일반
#의약품 #약 #약의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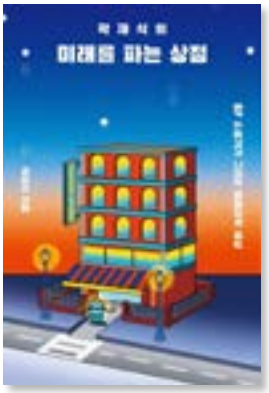
텐 드럭스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약의 역사를 알고, 약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기

약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도 의약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다양한 신약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이제 약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과학 연구자 출신의 저자는 10여 가지 종류의 약을 선택하여 각각의 개발 과정과 세상에 끼친 영향을 「텐 드럭스」를 통해 이야기한다. 흑역사를 포함한 약의 역사, 현대의 '약 권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가져야 할 약에 대한 인식, 약이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는 피해도 준다는 것을 알려주며, 약 연대기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현대인들이 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문지혜

과학 19



| 곽재식 | 다른
| 2020 | 248쪽
| 청소년
#과학기술 #상상력 #변화

곽재식의 미래를 파는 상점

무한 상상력과 첨단 과학기술로 꿈꾸는 미래과학 세상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곽재식 작가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지,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과학기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이런 예측은 상상 속에만 있는 허황된 미래는 아닐 것이다. 스마트폰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일상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상품들은 무한 상상력과 첨단 과학기술이 합쳐져 우리의 미래는 더욱 편리해지겠지만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그저 멋지고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책을 읽는다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이승혜

교양 20



| 손화철 | 책숲
| 2021 | 180쪽
| 청소년
#철학 #기술철학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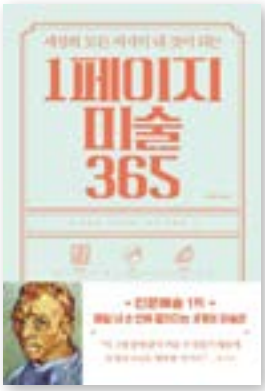
미래와 만날 준비

더 나은 미래세상을 위한 기술과 철학의 만남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보다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 컴퓨터, 의사만큼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하는 로봇,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등 더욱 향상된 컴퓨터를 바탕으로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된 기술에 금방 익숙해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이 바람직한가? 인간적인가? 등 철학적 물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원자력, 인공지능, 생명공학,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철학의 만남인 기술철학에 대해 말한다. 기술철학은 현대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생겨난 인간과 기술의 관계, 기술로 인해 생기는 변화에 관해 탐구하는 철학이다. 기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발전하는 기술 개발 과정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와 만날 준비, 이 책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상미

교양 21



| 김영숙 | 빅피시
| 2021 | 392쪽
| 청소년
#미술 #화가 #미술관 #명화

1페이지 미술 365

세계 명화 365점과 함께 미술의 모든 지식을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는 책

미술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작품을 보고 위로, 치유, 공감, 행복, 환희, 불안, 공포 등 다양한 감정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 그림, 화가, 미술관 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매일 1페이지씩 세계 명화 365점과 명작, 미술사, 화가, 장르 · 기법, 미술로 보는 세계사, 스캔들 · 미스터리, 신화 · 종교 총 일곱 분야의 지식으로 미술 교양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 반 고흐, 잭슨 폴록처럼 익숙한 화가부터 콜비츠, 키르히너 등 조금은 낯선 근대화가의 작품들을 엄선하고 회화뿐 아니라 조각, 고대벽화,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고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65점의 명화 중 나에게 위안이 되는 작품과 화가를 만나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기를 희망한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성은진

교양 22



| 브라이언 그린 | 와이즈베리
| 2021 | 532쪽
| 일반
#빅뱅 #진화
#우주시작과 끝

엔드 오브 타임

우주의 시작, 엔트로피와 시간, 생명과 진화,
인류의 의식, 언어, 종교 그리고 시간의 끝에 대한
물리학자의 이야기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감상적일 수 있는 질문에 저자는 과학으로 말을 걸어온다. 이 책은 엔트로피의 증가로 시간과 물리법칙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빅뱅에서부터 엔트로피를 증가시켜가며 우주의 형성, 생명의 진화, 인류의 의식 그리고 시간의 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또한 철학과 과학의 경계에서 과학자, 철학자, 인류학자, 종교학자들의 여러 의견과 예시로 독자가 스스로 논리를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우주, 시간, 입자를 이야기할 때는 「코스모스」를, 진화, 인식, 언어,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사피엔스」와 「이기적인 유전자」를 동시에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재치 넘치는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과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조광현

교양 23



| 이임정 외 | 초록비책공방
| 2020 | 296쪽
| 청소년
#한국영화20편
#비판적시각 #영화보기
#영화비평

십대, 영화로 세상을 논하다

다양한 사회 문제와 그 안에서 충돌하는 가치를
고민하며 영화를 통해 세상 바라보기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스크린쿼터제를 이제는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우리영화의 위상은 예전과 다르다.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크게 흥행하면 천만 관객을 기록하기도 하며 한국영화의 발전과 함께 영화관람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코로나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을 주저하게 되었지만, OTT 서비스 등의 확장으로 영화는 더욱 접하기 쉬운 매체가 되었고 그 영향력 또한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한국영화 중 현실의 문제를 생생하게 다루며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한 20편을 선정하여 영화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생각할 거리를 함께 실어놓았다. 청소년 시기에 고민해 볼 만한 가치를 제시하며, 묵직한 주제를 무겁지만은 않게 풀어내었기에 볼 만한 영화를 소개받는다는 생각으로 집어들기에도 좋은 책이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서영

교양 24



| 이용규 | 동양북스
| 2020 | 416쪽
| 일반
#서양미술 #유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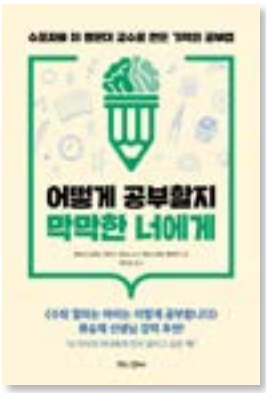
90일 밤의 미술관

유럽 유명 미술관의 도슨트 5인이 전하는 미술 이야기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시작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 유명 미술관의 작품 90점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유럽의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는 5명의 저자가 엄선한 작품이 실려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관광객들과 소통하여 고른 작품이기에 대중적인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익숙한 그림이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화가의 삶 이야기, 그림의 시대적 배경, 그림에 사용된 기법 등 설명이 흥미로우며 그림을 여러 차례 감상했던 도슨트의 감상 팁을 각 그림 끝에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이 특히 유익하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지금,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유럽 미술관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유현진

교육 25



| 바버라 오클리 외
| 북로그컴퍼니
| 2021 | 300쪽
| 청소년
#공부법 #뇌구조
#집중력 #암기력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너에게

'공부 잘하는 뇌구조' 만드는 쉬운 안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배우고, 습득하는 걸 잘한다는 것과 같다. 배우고,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남들보다 문제를 잘 처리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만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리고, 사회적인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좋은 공부법을 찾는 길로 사람들을 이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공부법 관련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은 특히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의 뇌를 공부 잘하는 뇌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연구한 공부법은 세계 최대 온라인 교육 사이트 코세라의 수강생에게 검증받은 공부법으로 집중력 증가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암기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신없는 과목을 잘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일독을 권한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김인석

교육 26



| 백경자 | 이비락
| 2021 | 220쪽
| 일반
#독일교육 #에세이 #부모

독일 부모는 조급함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세계, 독일 교육 문화 체험기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교육방식이나 철학은 제각각 다르다. 가령, 선행학습만 놓고 봐도 그렇다. 이 책의 제목처럼 독일 부모들은 아이의 학습에 전혀 조급해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래도 한글은 배우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부모일 것이다. 선행학습 이외에도 월반과 낙제, 성적은 있고 석차는 없는 시험 등 독일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저자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교육에 정답은 없다. 다양한 교육 방식을 배우는 것은 흥미로운 일로, 독일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현아

교육 27



| 심소정 외 | 이담북스
| 2020 | 183쪽
| 청소년
#꿈 #진로 #경험담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니?

너의 꿈은 뭐니?
다양한 인생 선배들의 생생한 직업 경험담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니?"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하고 아직은 어떤 꿈을 가질 것인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인생 선배들이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떻게 그 꿈을 실현했으며 보람이나 아쉬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가득 담고 있다. 열네 명의 저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보다 더 친근하고 귀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필요한 이유는 실패를 줄여나가고, 꿈의 나침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은 혼자 꿀 수 있지만,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로를 설계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덕순

교육 28



| theD마스터플랜연구소
| 더디퍼런스
| 2020 | 160쪽
| 청소년
#빅데이터 #빅데이터전문가
#직업로드맵

빅데이터 전문가 마스터플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작은 데이터들의 매력적인 집합

고객 자신보다 더 고객을 잘 아는 기업 아마존,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세계보건기구보다 열흘 빠르게 예측한 캐나다의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블루닷, 이 둘의 공통점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SNS, 쇼핑, 의료, 교육, 학습, 자료검색 발자국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미래 사회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도 관심이 있을 빅데이터 전문가란 무엇인지, 전문가가 되는 데 필요한 소양은 무엇이며 관련 학과와 전공, 자격증과 직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책 중간중간에는 가상의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워 보이는 빅데이터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제4차 산업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미리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최경미

고전 29



| 노자 | 현대지성
| 2009 | 276쪽
| 청소년
#노자 #도덕경 #동양철학
#중국철학 #무위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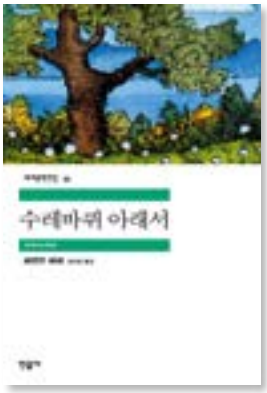
도덕경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건네는 노자의 삶의 지혜

노자의 도덕경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힘들기만 했던 나의 십 대 시절에 제목과 목차, 처음 몇 페이지만 훑어보고 이런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상적인 설교라며 치워버렸던 책이다. 그런데 십 대의 딸을 가진 엄마로서 만나게 된 도덕경은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물질적으로는 분명 더 풍요롭고 시간적인 여유도 나아졌지만 모든 것이 경쟁인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하루하루 전투처럼 살아가던 나에게 비움의 철학을 설파하는 노자의 어록은 매력적이다. 보석처럼 빛나는 청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고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노자의 도덕경과 만나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분명 나의 가치를 깨닫고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원문과 함께 제공되는 한문과 사자성어로 어휘공부가 되는 것은 덤이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엄영남

고전 30



| 헤르만 헤세 | 민음사
| 2009 | 278쪽
| 청소년
#성장 #자전적 #세계문학

수레바퀴 아래서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짓눌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스 기벤라트 삶의 일대기

한번,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보통은 학교 규율을 잘 지키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떠올릴 것이다. 「데미안」의 저자인 헤르만 헤세는 29세의 젊은 날에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자전적 소설을 집필했다. 소설 속 한스 기벤라트는 작가의 유년 시절 경험을 토대로 탄생한 주인공으로 한스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는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버리는 '부적응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자유로운 공상가였던 동급생 헤르만 하일러의 퇴학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졸업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해보려 노력하지만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다. 이후 그는 어떻게 될까? 현 교육 현실에 자신의 재능을 찾아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수레바퀴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복은솔

어린이 31



| 과학을 위한 여성 과학자 모임
| 그레이트BOOKS
| 2020 | 32쪽
| 초등 저학년
#바이러스 #마스크
#미생물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벗어도 돼?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때로는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모든 것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사는 우리, 과연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비밀을 담고 있다. 과학과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과학을 위한 여성 과학자 모임〉에서 전문지식을 담아 글을 썼고, 마리오나 톨로사 시스테레의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로 채워져 있다. 바이러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는지, 바이러스의 종류와 팬데믹,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바이러스 역사와 거짓,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때로는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며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박주희

어린이 32



| 폴 드 리브롱 외 | 북멘토
| 2021 | 104쪽
| 초등 고학년
#코로나 #방역수칙
#집콕생활 #생태백신

코로나 탐구 생활

변화한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코로나 방역 실천 지침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을 변화시켰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행 중이다. 이 책에서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방역 수칙과 집콕 생활 등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일상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고 있다. 집콕 생활에서 사람들은 발코니를 통해 이웃들과 소통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원격 수업과 재택 근무의 변화도 볼 수 있다. 또한, 방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슈퍼 히어로로 지칭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 백신, 백신 주사, 생태 백신을 이야기한다. 어린이 스스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또 지구를 아끼는 태도를 갖고 생활하다보면 코로나도 저 멀리 달아나지 않을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김성민

어린이 33



| 아발론 누오보 | 찰리북
| 2021 | 72쪽
| 초등 중학년
#오케스트라 #악기
#음악 #클래식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

클래식은 특별한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클래식 음악은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다. 매일 듣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TV 드라마나 광고에서도 자주 클래식 음악을 쓰고 있어 생활 속에서 클래식 음악을 만나고 있다. 이 책 「오케스트라」에서는 자주 듣고 있지만 잘 몰랐던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의 역사와 바이올린, 클라리넷, 트럼펫 등 사용되는 악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장소(콘서트홀) 등을 자세한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중세의 천재 작곡가 힐데가르트 폰 빙엔, 사계의 비발디, 여성 작곡가 에이미 비치 등 연주자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한다.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등을 오케스트라와 비교하며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다. 클래식 음악이 궁금한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윤정화

어린이 34



| 이나영 | 위즈덤하우스
| 2021 | 132쪽
| 초등 고학년
#6학년 #상처 #화원
#원예테라피

상처 놀이

식물 가꾸기를 통한 마음의 회복

'자녀의 나이가 곧 부모의 나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 한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 책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처 놀이」는 내 아이와 같은 학년인 6학년 시원이와 가영이의 이야기에 끌려 고르게 된 책이다. 살짝만 건드려도 움츠러드는 미모사와 같이 아직 단단하게 영글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른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득하다. 시원이는 마음속으로 상처를 애써 감추고, 가영이는 몸에 가짜 상처를 만들어 친구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두 아이는 버려진 식물들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받게 된다. 시원이와 가영이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수련(睡蓮, 잠자는 연꽃)처럼 걱정 없이 잠을 자고, 활짝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6학년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주경옥

어린이 35



| 조나단 가르니에 | 북극곰
| 2020 | 96쪽
| 초등 중학년
#위로 #용기 #편견 #동정심

모모

사탕처럼 달콤한 향수로 가득한 이야기

주인공 모모의 가족은 배를 타는 아빠와 할머니다. 아빠는 항해로 거의 집에 없고 할머니와 둘이 살아간다. 이런 환경이 편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모모는 호기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멋진 아이다. 들고양이를 쫓아가고, 동네 아이들 놀이에 끼어들고 담배를 피는 언니에게 못생겨지니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당당한 아이가 모모다. 책을 읽을수록 사랑스러운 모모에게 빠져들고 표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로 그려진 장면은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 움직이는 것 같아 신선하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림들이 클로즈업 되어 이야기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힘든 시기 작은 여자아이 모모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다.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박유진

어린이 36



| 캔디스 플레밍 | 책읽는곰
| 2021 | 52쪽
| 초등 중학년
#꿀벌 #자연 #환경 #사랑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우리가 몰랐던 꿀벌 아피스의 일생을 읽으며
자연과 환경을 생각해 보자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은 때론 무서워서 피하기도, 무심히 지나치기도 했던 우리 주변의 꿀벌 이야기이다. 아피스는 과학자들이 부르는 꿀벌의 이름으로 어느 여름날 아침 갓 태어난 아피스는 꼬물꼬물 밀랍 뚜껑을 씹으며 방에서 나온다. 방에서 나온 꿀벌 아피스는 애벌레를 돌보고, 밀랍을 반죽해 벌집을 짓고, 벌들이 가져온 꽃가루로 꿀을 만들기도 한다. 이 책은 꿀벌의 한살이를 다큐멘터리처럼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전개에 따라 생생하게 전해 준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꿀벌 아피스의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을까? 언제 날아오를까? 꿀벌 아피스가 날아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꿀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감동과 재미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정영숙

어린이 37



| 이금이 | 사계절
| 2021 | 136쪽
| 초등 고학년
#사춘기 #우정 #고양이
#이름

차대기를 찾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중 반려동물 유튜브 인터뷰로
'우리 집 스타'가 되는 이야기

아동문학의 노벨문학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에 2020년 한국 후보로 선정된 이금이 작가의 신작이다. 주인공 차대기는 '똥자루'라는 별명을 숨기며 조마조마한 학교생활을 한다. 짝꿍 강윤서와 길고양이를 돌보던 일을 하던 중 반려동물 유튜브 인터뷰를 요청받는다. 이 일로 집에서 '우스(우리집 스타)'라는 별명을 얻고, 학교에서는 유명인사가 된다. 윤서와 친해지면서 대기는 윤서에게도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된다. 윤서가 쓴 길고양이 나리를 위한 전단지에는 아빠와 엄마, 언니에게 쓴 편지처럼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윤서는 길고양이 밥도 주고 집에 데려다 키우기까지 하고, 나리를 두고 간 아이에게도 편지를 남기는데, 길에서 주운 서류 봉투 하나 파출소에 갖다주는 것도 싫어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차대기의 마음이 온기를 전해준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봉화

어린이 38



| 루리 | 문학동네
| 2021 | 144쪽
| 초등 중학년
#흰바위코뿔소 #아기펭귄
#우정 #여정

긴긴밤

세상에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와
어린 펭귄이 바다를 찾아 떠나는 기적같은 이야기

코끼리들의 품에서 태어난 코뿔소 '노든'은 스스로 코뿔소가 되기 위해 바깥세상으로 나선다. 그러던 중 야생에서 만난 아내와 딸을 인간들의 습격으로 잃게 되고,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 노든은 인간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그곳에서 코뿔소 '앙가부'를 만나지만 앙가부 또한 밀렵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꿈꾸던 복수를 하기 위해 동물원을 탈출한 노든은 역시 동물원에서 탈출한 펭귄 '치쿠'를 만나고 함께 동행한다. 유쾌한 치쿠는 노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지만, 치쿠마저 세상을 떠나고, 노든은 치쿠가 남긴 알을 품어 새끼 펭귄이 태어나게 한다. 세상에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은 이 새끼 펭귄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바다에 도착하게 된다. 수많은 긴긴밤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걷는,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우리'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마침내 바다에 닿았다는 이 기적같은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감동과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박현주

어린이 39



| 파프리지오 실레이 | 맛있는책
| 2021 | 44쪽
| 초등 저학년
#틀림 #다름 #포용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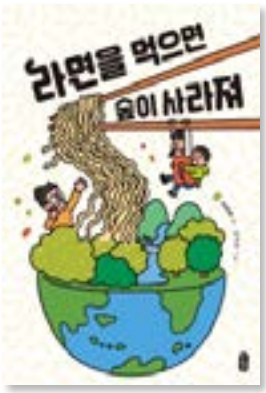
너저분 선생님과 깔끔 선생님

두 주인공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기

주인공인 클럼프씨와 니트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클럼프씨의 집은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다. 책은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고, 짐들은 뒤죽박죽, 머리는 서로 엉켜있어서 새들이 알을 낳아도 모를 정도다. 니트씨는 클럼프씨와 정반대로 아주 깔끔하다. 집도 반짝반짝 깨끗하고, 책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한 가닥 있는 머리카락도 정성스럽게 손질한다. 이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데, 그 이유는 같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둘은 서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 니트씨는 지저분한 클럼프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클럼프씨는 니트씨가 지나치게 깔끔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학교에 새로 온 그로우 선생님에게 푹 빠지게 되고, 그로우 선생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두 선생님이 어떻게 변하는지 책속에서 찾아보자.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이지현

어린이 40



| 최원형 | 책읽는곰
| 2020 | 216쪽
| 초등 중학년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생태계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우리 동네의 환경 오염 사례를 소개하며
어린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야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와 라면,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사소한 행동들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들의 목소리로 재치 있게 담아내고 있다. 라면과 고기를 덜 먹으면 숲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는 동물들이 살 곳이 늘어나고 온난화를 막을 수 있어 태풍,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다. 제주도의 돌고래 이야기, 도로 개발로 인한 동물들의 로드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환경과 생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이승희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가로 열쇠

1. 바둑을 직업으로 삼아 전문적으로 두는 사람 (18쪽 서평)
3. 원자핵의 붕괴나 핵반응의 경우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핵에너지 (26쪽 서평)
5.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 (27쪽 서평)
6.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 (30쪽 서평)
7.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13쪽 서평)
9.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21쪽 서평)
11. 표를 통하여 인기의 순위를 정하는 일
12. 만물의 근원을 이룬다는 신령스러운 기운 (7쪽 서평)
13. 원통형으로 생긴 목관 악기로, 음색이 독특하고 음역이 넓어 관현악뿐만 아니라 실내악, 독주, 중주에도 쓰이는 악기 (39쪽 서평)

세로 열쇠

1. 동물, 식물, 세균 따위의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비세포성 생물 (37쪽 서평)
2. 전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 (12쪽 서평)
4.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일 (26쪽 서평)
8. 적으로 대하거나 적과 같이 대하는 것 (13쪽 서평)
9. 구체적인 실제의 보기 (15쪽 서평)
10. 노래를 중심으로 한 극으로서, 독창, 합창, 관현악을 사용하고, 발레도 참가하는 규모가 큰 음악극 (39쪽 서평)
11.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17쪽 서평)

정답은 74쪽에…

조슈아 트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봉화



저 자 | 장미
출판사 | 서유재
대 상 | 청소년
주 제 | 사춘기 소녀의 상처와 치유를 통한 성장이야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조슈아 트리」는 여호수아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성서 속의 나무다. 나무 뿌리가 하늘로 솟아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나무는 그리 이쁘지도 않고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상처와 삶이 마치 조슈아 트리와 닮아 있는 듯하다. 마른 지팡이에 싹을 틔우는 조슈아 트리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수아네 가족과 연우 이모를 보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춘기 소녀 수아의 마음]

수아 부모님은 이혼을 했다. 자유를 찾아 필리핀으로 떠나버린 무책임한 아빠, 동네에서 문방구를 하며 억척스런 아줌마가 된 엄마, 공부에는 관심 없는 무식하고 한심한 고3 수험생 오빠가 수아의 가족이다.

사회에서 흔히 괜찮다고 하는 상태, 사람들이 쉽게 모범적이라거나 일반적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가족은. (30쪽)

각자의 아픔이 커서 서로 보듬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수아네 가족. 자신을 숨기고 싶은 열여섯 살 수아는 큰 상처를 안고 있지만, 애써 아닌 척 애쓰는 아이다. 엄마의 어릴 적 고향 동생인 연우 이모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지만, 겉으로만 명랑하고 씩씩한 수아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나도 아빠와 카톡 같은 걸 하고 싶다. '아빠 용돈 좀~' 이런 말도 써서 보내고, 재미없는 아재 개그에는 답도 안 해 주고, 그래 보고 싶다. 평범하고 당연해서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니. (103쪽)

한편, 아빠를 향한 그리움은 학교 선생님을 향한 수줍은 짝사랑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아는 연우 이모의 엄청난 비밀을 터뜨리게 되는데...

[연우 이모의 책방 일기]

어릴 적엔 남자 아이였던 성우, 가족들 앞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결국 집을 나온 연우 이모는 의순 언니(수아의 엄마)를 만나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

나 아닌 타인에게 이해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확률이란 1/9 정도라는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뭐 어때? 더 잃을 것도 없잖아'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27쪽)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본인의 모습으로 살기로 한 연우 이모는 수아네 집 옥탑방으로 이사를 오고 노틀담 아저씨의 솔 책방을 인수하면서 '책방 이모'로 불리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다.

손님이 오려면 아직 한참 여유가 있는 책방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음악 들으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에 책방 문을 닫고 봉수로 7길 좁은 골목을 걸어 옥탑에 있는 내 방을 향해 또각또각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아담한 내 집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무언가 먹을 것을 만드는 순간도 좋고요. (81쪽)

어느 날, 연우 이모의 엄청난 비밀이 온 동네 소문이 나고 어느 할머니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감동의 눈물을 쏟으며 비로소 이모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조슈아 트리가 되겠다고, 모두 조슈아 트리로 우뚝 서서 싹을 틔우자고 다짐한다. 책방 일기는 가족도 외면한 힘든 날들을 살아야 했던 연우 이모의 아픈 과거를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이웃이든 사이좋게 지내고 좋아하면서 욕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오. (206쪽)

이 책에는 한부모 가정인 수아네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연우 이모 외에도 가위손 아저씨, 노틀담 아저씨 등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와 다른 모습이어도 차별 없이 편견을 버리고 보자는 '조슈아 트리'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자.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게 해주는 가슴 따뜻한 책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낙원의 아이 | 남상순 | 여섯번째봄

▶소희의 방 | 이금이 | 밤티

책-영화 함께 읽기

「듄(DUNE)」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김석주



저 자 | 프랭크 허버트
출판사 | 황금가지
대 상 | 일반



감 독 | 드니 빌뇌브
출 연 | 티모시 샬라메
레베카 퍼거슨 외
개 봉 | 2021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정신을 죽인다.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초래하는 작은 죽음이다. 나는 두려움에 맞설 것이며 두려움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나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이 지나간 길을 살펴보리라.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남아 있으리라."

「듄 1」 17쪽

영화 「듄」은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듄」을 원작으로 드니 빌뇌브 감독이 2021년에 영화로 제작했다. 1984년 데이비드 린치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드니 빌뵈브 감독은 어릴 때 즐겨 봤던 소설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표현했다.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생산되는 유일한 행성이다. 스파이스를 섭취하면 예지력과 통찰력이 생기며 노화를 막아준다. 오랫동안 하코넨 가문이 아라키스를 통치하며 스파이스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황제의 명령으로 아트레이데스



▲ 듄-그래픽노블

가문이 아라키스를 점령한다. 결국 아트레이데스의 레토 공작은 황제와 하코넨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한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 폴(티모시 샬라메)은 베네 게세리트 집단이 기다리던 '퀴사츠 해더락'의 운명을 타고 났다. 어머니와 폴은 공격을 피해 죽음의 사막으로 도망친다. 폴은 아라키스의 원주민 프레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프레멘들을 만나 여정을 떠나며 영화는 끝난다. 2편은 2023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설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 영화에서는 내용의 흐름에 중요한 사건만 영화화하여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이 있다.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어 영화에서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 듄 2 – 게임

소설 「듄」은 프랭크 허버트가 1965년 쓴 장편 SF 소설이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SF소설로 1965년 제정된 네뷸러 상의 첫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휴고 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저자가 기자 시절 해안의 모래언덕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를 하다 영감을 받아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 출간 후 큰 인기를 얻어 총 6권의 '듄 연대기'를 집필한다. 「듄의 메시아」, 「듄의 아이들」, 「듄의 신황제」, 「듄의 이단자들」, 마지막 6권 「듄의 신전」 집필 후 사망했다. 이 소설은 영화 「스타워즈」,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92년에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게임으로도 제작되었다. 2020년 프랭크 허버트의 아들인 브라이언 허버트가 각색에 참여하여 그래픽노블로도 출간되었다. 소설을 읽었다면 영화, 그래픽노블, 게임 등에서는 이 소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비교하며 보는 것도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다.

프랭크 허버트(1920~1986)
미국 워싱턴주 출생. 1939년 기자로 활동하다 소설 「듄」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65년 발표한다. 처음에는 수익이 없어 다른 일을 하며 작품을 집필하였으나 1972년부터 전업작가로 활동했다. 1985년 「듄의 신전」 발표하였다.



친구가 권하는 책

동암중학교, 신곡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회룡중학교 독서동아리 친구들



저 자 | 팀 보울러
학 교 | 의정부여중
추천인 | 이아연

리버 보이

이 책 제목에는 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책은 소녀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야. 죽음을 앞둔 화가 할아버지와 수영을 좋아하는 손녀 제스는 계곡이 있는 골짜기로 여행을 가게 되지.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여행을 마무리할지 궁금하지 않니? 이 책은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무겁지 않아. 오히려 강과 숲속의 풍경을 자세히 묘사해서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가 올거야. 처음엔 약간 지루한 듯 느껴질 수 있지만, 책을 거의 다 읽어갈 때는 제스와 함께 생각이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여행하기 쉽지 않은 요즘, 근심 걱정 따위는 잠시 놓아두고 푸른 숲속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감동을 느끼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할게.



저 자 | 정은숙
학 교 | 신곡중
추천인 | 김류은

내일 말할 진실

책 제목을 보면 내일 말할 진실이 무엇일지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니? 처음에는 추리소설처럼 진실을 밝혀 나가는 이야기일 줄 알았어. 그런데 꽤 현실적인 이야기더라고. 읽고 나서 '과연 나는 한 번도 진실을 외면한 적이 없을까?'라고 자문해 봤어. '어떤 행동이, 어떤 말이 잘못이었을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저 타이밍이 나빴을 뿐 이해해야 할 순간에 애써 오해하고, 오해를 풀어야 할 순간에 지레 발을 뺐다.' 라는 부분은 특히 기억에 남아. 타이밍이 어긋나 잘못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사건들 때문에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 감동과 교훈을 얻고 싶다면 읽어봐!

비밀의 화원

주인공 메리는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고모부가 살고 있는 황무지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져. 책 속 문장 중 '슬픈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염병 세균을 몸 안에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어. 황무지처럼 나쁜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많이 경험하곤 했거든. 불평불만 많던 고집스러운 메리가 우정을 쌓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니? 등장인물들이 화원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는 과정이 궁금한 친구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길 추천할게



저 자 |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학 교 | 신곡중
추천인 | 김영은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읽게 된 책이었어. 뒤에 '비밀글입니다' 라는 부제가 호기심을 더 일으키기도 했고. 주인공은 체리새우를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더 집중해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 결국,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 우리 또래 친구들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를 소재로 하는 책이어서 더 공감되었던 것 같아.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꼭 한번 읽어봐!



저 자 | 황영미
학 교 | 동암중
추천인 | 이채원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인생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들이 시와 짧은 글로 이어져 있는 에세이야. 에세이를 좋아해서 많이 읽은 친구들에겐 식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재미있게 읽은 책이야. 문장과 단어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 미래가 두려워 위로받고 싶거나 과거가 후회돼서 자신을 탓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 책을 통해 행복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 추천하고 싶어.



저 자 | 소윤
학 교 | 회룡중
추천인 | 이용빈



저 자 | 남유하 외
학 교 | 동암중
추천인 | 이단비

푸른 머리카락

자이밀 행성에 여자가 소멸해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이밀리언들은 지구의 물 부족 현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지구인과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은 성공했어. 하지만 자이밀리언에 대한 지구인들의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 주인공은 전학을 와서 자이밀리언과 지구인 사이에서 태어난 푸른 머리카락의 아이를 보게 되고 그 후 그들에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였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분도 여러 번 있었지. 과학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히는 몰입이 잘 되는 책이야.



저 자 | 허진희
학 교 | 신곡중
추천인 | 이지현

독고솜에게 반하면

도서관에 전시된 책표지를 보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교실을 배경으로 조금 화난 듯 무심한 표정으로 필기 중인 여학생과 그를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는 여학생이 그려진 표지인데, 무슨 이유인지 너무 궁금한 거 있지! 주변의 시선과 소문을 신경 쓰지 않는 전학생 독고솜과 어두운 뒷배경이 있는 것 같은 단태희, 우리가 학교에서 한 번쯤은 봤을 존재감이 뿜뿜한 친구들까지. 명탐정 서율무와 어딘가 수상한 독고솜 사이에 일어나는 판타지적이지만 현실적인 이 책을 읽다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어쩌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저 자 | 이꽃님
학 교 | 회룡중
추천인 | 김태윤

죽이고 싶은 아이

이 책은 '여고생 사망' 이라는 큰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돼. 유력한 용의자 주연, 변호를 맡게 된 김변호사, 반 친구들 등 여러 인물들이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리를 하는 모습 등에서 시점이 자주 바뀌어. 그래서 손에 땀이 나는 추리를 해 볼 수가 있어. 책 내용은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어서 좀 어두운 면이 있지만 '진실' 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사람이 옳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진실일까?' 라고 말이야. 이꽃님 작가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읽어봐!

배심원



저 자 | 이인철
학 교 | 동암중
추천인 | 박예원

주인공 상태와 도진은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벌이게 돼. 최고의 로펌이 있는 재벌2세 도진과 가난한 집 아들 상태는 재판의 시작점부터 달라. 잘못한 도진이 받아야 할 벌은 돈과 높은 사회적 지위로 진실이 가려지는 상황에 이르지만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일념과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들 덕분에 결국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상태는 승소하게 돼. 거짓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을 맞을수도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읽어봐. 작은 깨달음 하나쯤은 꼭 얻을 수 있을거야.

1987 그날



저 자 | 유승하 외
학 교 | 회룡중
추천인 | 원하진

「1987 그날」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1987년 그 당시 젊은이들의 이야기야. 대학생 신분의 진주, 혜승, 나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가장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던 사건은 학생 운동가 박종철 열사의 물고문 사건이었어. 영화 <1987>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였지. 무엇보다도 부검한 의사조차도 거짓말로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야. '전두환 정권 시절의 탄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 슬프더라.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게 된 책이었어.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 금융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현유정

세금 내는 아이들

옥효진 | 한국경제신문 | 2021



유튜브 <세금 내는 아이들> 속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매년 반 학생들과 하고 있는 '학급 화폐' 활동을 토대로, 스스로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투자하는 교실 속 작은 경제 국가 이야기다. 재미있는 동화 형식으로 주인공 시우와 친구들은 1년 동안 '활명수 나라'의 '국민'이 되어 직업을 선택하고, 월급을 받고 세금도 낸다. 아이들은 교실 속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경제 습관을 만들고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올바른 소비와 현명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똑똑한 돈 설명서

라슈미 시르데슈판드 | 솔빛길 | 2021



'돈'이 무엇이며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지, 번 돈을 어디다 쓸지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금융 실전 입문서이다. 어려운 경제 금융 개념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및 용어 설명에 일러스트가 더해져 있다.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돈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이다.

참 쉬운 돈과 금융

에디 레이놀즈 외 | 어스본코리아 | 2019



돈의 쓰임, 은행이 하는 일, 세금의 개념, 돈을 벌고 빌리는 방법 등 초등 〈사회〉 교과서 속 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돈에 관련된 사회 현상 전반까지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경제 입문서이다. 금융 · 경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와 만화 같은 일러스트,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구성으로 짜여 있다.

아홉 살 돈 습관 사전

박정현 | 다산에듀 | 2021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돈에 대해 바르게 알고 친해지는 27가지 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 저축 습관, 소비 습관, 투자 습관까지 올바른 돈 감각으로 어릴 때부터 평생 부자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제 관념을 익힐 수 있다. 재미있는 그림과 친절한 설명,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과 연습 활동이 담겨 있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금융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돈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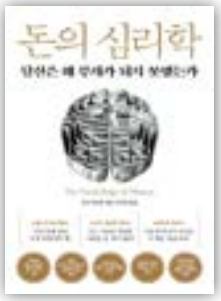
김승호 | 스노우폭스북스 | 2020



최상위 부자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이 돈이 가진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 알려준다. 이 책의 가치에 공감하고 실행하면 이전과는 다른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삶을 살 수 있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경제적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돈 버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 | 인플루엔셜 | 2021



저자는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돈 문제는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돈 관리는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총 20개의 투자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관점과 태도로 부를 추구할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돈의 심리학'을 알아야 한다.

워런 버핏 바이블 2021

이건 외 | 에프엔미디어 | 2021



버핏의 투자와 인생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차보고서에 실린, 버핏의 친필 주주 서한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해설한 책이다. 2017~2021년까지의 기간을 다룬 책으로 최근 5년 동안의 버핏과 멍거의 모든 기록을 망라했다. 주주 서한과 주주총회 질의응답을 주식투자, 채권 · 외환, 기업 인수, 자본 배분, 삶의 지혜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이 더해져 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정선용 | 알에이치코리아 | 2021



151만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요청으로 출간된 50억 자산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과 부의 노하우를 전하는 책이다. 21세기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잣돈(씨드 머니), 복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공부의 동기를 부여하는 비법이 담겨 있다.

꿈을 만들어가는 진로독서

공학 계열

꿈을 현실로! 독서를 통해 꿈을 찾아 디자인해보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이노경 /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세희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



서대호 | 반니 | 2021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향한 나침반

인공지능분야에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한 청소년들을 위해 멘토가 나섰다. 이과계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책에 나온 커리큘럼대로 따라가 본다면 자신만의 방식을 구축해 나가며 어느새 AI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잘 정리된 나침반을 통해 나의 꿈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보자.



지금은 공학소녀시대



오명숙 외 | 북센스 | 2020

소녀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공학' 이란 무엇일까? 막연히 어렵고 남성들에게 더 적합한 학문처럼 느껴졌는데, 공학의 정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부를 구축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학문' 이라고 한다. 또한 공학은 여성에게 유리한 분야라고 하니 자동차, IT, 토목, 대학, 극지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내공을 쌓은 여성 공학인 멘토들이 소녀들을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김민준의 이너스페이스



김민준 외 | 동아시아 | 2020

난독증을 극복한 나노로봇 공학자의 삶

세계 최초로 인체탐사 '트랜스포머' 나노로봇을 개발한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김민준 석좌교수는 SF적 상상력을 현실화한 세계적 석학이다. 30cm자가 없으면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난독증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는 도전으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연결해나가며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삶'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과학, 인간, 기술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인간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에세이는 과학자로서의 삶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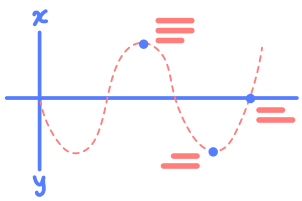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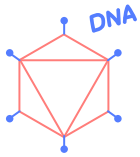
로봇공학자 마스터플랜

theD마스터플랜연구소 | 더디퍼런스 | 2021

4차 산업혁명의 키맨, 로봇공학자가 되는 위대한 여정

로봇공학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로봇공학자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미래를 맞이 할까? 로봇공학자가 만든 로봇과 더불어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은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로봇을 설계하고 만드는 로봇공학자 소개, 로봇공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로봇공학자의 직업적 장점과 단점, 미래 전망 등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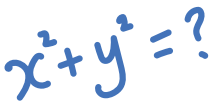
데이터 과학자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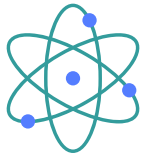
박준석 외 | 휴머니스트 | 2021



금융, 게임에서 스포츠까지 현장에서 찾아낸 데이터 과학의 오늘

이 책은 데이터 과학자가 문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시행착오를 거치며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데이터에서 유용한 통찰을 얻는 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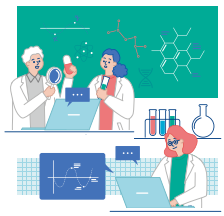


여성 공학자로 산다는 것

스테파니 슬로컴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9

엔지니어로 성공하기 위한 초특급 실전 가이드북

공학의 세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할까. 여성 공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해답을 찾아 보자. '여성'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 아무런 차별이나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공학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공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공학자로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



교과연계 추천도서

초등 5~6학년 실과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복은솔 /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김은

재치 있는 의생활



홍준희 | 다림 | 2020



척박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기 시작한 옷은 이제 자신의 성향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렇기에 본인이 편하게 느끼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옷을 고를 때 디자인이나 색상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이 아닌 오래 입을 수 있는 '지속 가능 스타일', 동물 모피 소재가 아닌 친환경 소재를 알기 쉽게 알려주며,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적당한 옷을 고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아직 나다운 옷을 찾지 못했다면 '재치 있는 의생활'을 펼쳐서 읽어보자.

왜 조심해야 돼?





박현숙 | 꿈터 | 2020

월별로, 계절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끼리 묶어 정리되어 있으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나의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습득해야 할 안전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담겨있다. 세쌍둥이가 각각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이 되어 사고를 겪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려준다. 일상 속에서 부주의하게 일어나는 사고 이야기는 경각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자연스레 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이 책을 통해 기른 안전습관을 이용하여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암호가 필요해



엘라 슈월츠 | 나무야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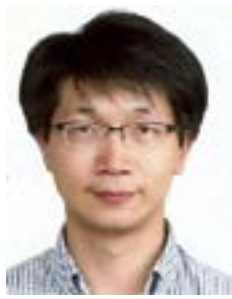
추리 프로그램이나 방 탈출 게임을 통해서도 정말 다양한 암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암호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나만의 암호를 만들 수도 있을까? 보안과 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의 역할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권한다. 고대 암호부터 현대 암호 공학까지 흥미로운 암호의 세계를 알아감과 동시에 책 속 단서를 통해 실제로 암호를 풀어볼 수 있어 재미를 준다.

교과연계 추천도서
초등 5~6학년 실과

분야	서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
아동기 발달과 성	내 몸이 궁금해요	파울린느 아우드	북드림아이	2020
	좋아요! 싫어요!	파울린느 아우드	북드림아이	2020
가정생활과 안전	너 아직도 똥 못 쌌지?	김하은	개암나무	2020
	밥 도감	고은정	현암주니어	2020
	재치 있는 의생활	홍준희	다림	2020
	왜 조심해야 돼?	박현숙	꿈터	2020
	뿌뿌 과학 도감 : 영양소	이토 미쓰루	다산어린이	2021
자원관리와 자립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쓰는 법	이영주	사계절	2020
	오늘은 용돈 받는 날	연유진	풀빛	2021
생명기술	반려동물 무엇이든 물어봐!	예영	파란자전거	2021
수송기술	아주 크고 빠른 배	데이비드 맥컬레이	아울북	2021
일과 직업 탐색	내가 하고 싶은 일, 의사	박지영	휴먼어린이	2021
	바이오가 궁금해?	강건욱	상상미디어	2021
	인공지능으로 알아보는 미래 유망 직업	김일옥	뭉치	2021
	비행기와 공항 탐구생활	백소라	동아시아사이언스	2020
	선생님, 건축이 뭐예요?	서윤영	철수와영희	2020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실라 카나니	동아시아사이언스	2020
건강한 우리 가족	사춘기 대 갱년기	제성은	개암나무	2020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	박스타	소동	2020
가정생활	생각이 크는 인문학. 21: 조리	김종덕	을파소	2021
생활 속 소프트웨어	그림과 이야기로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코딩 첫걸음	김현정	궁리출판	2020
	수학 유령의 미스터리 코딩 수학	정재은	글송이	2020
	어린이를 위한 미래 과학, 빅데이터 이야기	천윤정	팜파스	2020
발명과 로봇	날개가 바꾼 역사	트레이시 터너	아이위즈	2021
	바퀴가 바꾼 역사	트레이시 터너	아이위즈	2021
	배울수록 더 강해지는 인공 지능	김다해	뭉치	2021
	앗! 이런 발명가 와! 저런 발명품	박주혜	뭉치	2020
	로봇 시대 미래 직업 이야기	김은식	나무야	2021
	그래서 암호가 필요해	엘라 슈윌츠	나무야	2021
	끄고 놀자	빈센트 빈센트	머스트비	2021

책 읽는 스승 릴레이_쉰아홉 번째

「논어」 읽기



시흥매화고 유상철 선생님



일요일 저녁 친하게 지내던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책 읽는 스승 릴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통을 이어받아 글을 써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긴 고민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요즘 열심히 다루고 있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논어>였다. 나는 학교에서 '매화학당(梅花學堂)'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교사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동문수학한 선생님이 '반 모임' 이라 하여 본인의 반 학부모님들과 격주로 학습모임을 가졌는데 좋았다고 했다. <논어>를 마중물로 시작하여 학급 운영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토의했는데 그 결과 학급에서의 폭력, 왕따, 학급 부진아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언젠가는 학부모-교사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2학년 학부모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모임이 구성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모임을 원활히 꾸릴 수 있게 되었다. '매화학당'은 2주에 한 번 열렸다. <논어>의 주요 주제인 배움, 성장, 인(仁), 예(禮), 효(孝) 등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나의 강독이 끝나면 학부모님과 교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 년 동안 학부모와 함께 <논어>를 읽으며 20년 동안의 교직에서 얻지 못했던 신선한 감정을 느꼈다. <논어>는 20장 490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가 소중한 내용이지만 1장과 2장이면 1년을 보낼 만큼의 주제가 풍부하다. 특히, '학이편' 첫 번째 구절은 학부모뿐 · 교사 · 학생이 꼭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학습(學習)', '벗', '나를 위한 배움'에 대한 내용인데 담고 있는 뜻이 깊고 향기롭다.

「논어」의 첫 번째 구절을 함께 읽어보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 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1. '학습(學習)'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우리는 살면서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평생 학습', '보충 학습', '자율 학습', '심화 학습' 등. 자주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이 단어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학습'은 생각보다 담고 있는 의미가 크다.

'배움(學)'은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내적 성찰을 통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라는 말은 '삶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반성할 줄 알며,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목표의식, 내적 성찰, 성장 의지 없이 단지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학생이 되는 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배움'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익힘(習)'은 '새가 분주히 날갯짓함'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어린 새가 어미의 날갯짓을 본받고자 어설프게 퍼덕여본다. 어린 새의 날갯짓 연습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날 수 있을 때까지이다. 배움도 그렇다.

'습(習)'이란 수시로 자신의 몸에 완벽히 익히는 것이다. 배운 것을 자신의 몸에 익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오늘날 선발을 위해 학생들을 줄 세우는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 생활기록부 교과세특 기재는 진정한 의미에서 '배움'이나 '익힘'과는 상관이 없다. 오로지 앎이 삶의 수단이 될 때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삶이 앎의 수단이 된다면 학생들은 생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학습(學習)'의 의미를 이해하여 삶과 앎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내면의 즐거움(說)'이 생기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2. 벗

'벗이 멀리서 나를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를 '친한 친구가 술 한 병 들고 나를 만나기 위해 와서 마음이 즐겁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독(誤讀)이다. 이 구절에서의 핵심 글자는 '붕(朋, 벗)'인데, 이는 '길을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이다.

'도(道, 길)'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경로이다. 자신과 함께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가 '벗'이다. 공자는 세상을 정감 어리고(仁) 질서있는 세상(禮)이 되기를 꿈꾸었다. 춘추전국(春秋戰國)의 암울한 시기, 제후가 황실을 능멸하고, 대부가 제후를 능멸했던 하극상의 시대를 살아온 공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 그와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하며 뜻을 함께한 이들이 있었기에 공자는 말년에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안회(顔回), 자로(子路), 자공(子貢) 등 그의 제자들이었다. 나이 70을 넘겨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공자에게 제자들은 진정한 '벗'이었다. 그들이 멀리서 찾아와 함께 하니 공자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었을까?(不亦樂乎)

3. 나를 위한 배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남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배움은 오로지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남을 딛고 올라서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 남과 성적을 비교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등수가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등수가 높은 학생은 교만해질 수 있고, 등수가 낮은 학생은 자신을 낮춰보는 마음이 생긴다. 배움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함이니, 자신의 자리에서 미약하나마 발전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격려하고 더욱 분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움은 '자신을 위한 배움(위기지학, 爲己之學)' 이어야 한다. '남을 위한 배움, (위인지학, 爲人之學)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학교에서 사라진 문화(금지당한 측면이 크다.)이지만 누군가가 학교를 옮기면 선생님들끼리 난(蘭)을 선물하곤 했다. 난(蘭)은 깊은 산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데, 꽃을 피우면 그 향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다. 누가 보지 않아도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이 난(蘭)이기에 그 덕을 본받아 외롭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신을 믿고 분발하라는 뜻을 품고 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고 스스로 성장함에 감사하고 즐긴다면 성적을 비관하여 괴로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40대 교사의 여가

나는 요즘 소파에 앉으면 「논어」를 소리 내어 읽는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구절이 유행가 가사처럼 뇌리에 박힌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습(習)하지 못하였기에 지금도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읽는다. 조선 시대 선비들도 「논어」를 열심히 읽었다고 한다. 영조 시절의 선비 역천 송명흠 선생은 「논어」를 온 힘을 다해 50번이나 읽었다고 했다.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나는 역천 선생의 경지(境地)가 궁금하다. 「논어」를 온전히 50번 읽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읽기를 권해본다. 「논어」를 습하여 삶이 바뀌는 기적을 느끼시길 바란다.

북 큐레이션, 나를 완성해가는 독서 생활 더하기

성남, 청솔중학교 김정심 사서교사

성공적인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용자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청솔중학교의 특성은 도심 속의 소규모 학교이고 학생 수가 적어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자료 지원이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업 진행을 도우려면 학생과 교사에 대한 참고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학기 시작 전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다. 성남시는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협력이 잘 되어 있어 학기 중에 부족한 자료가 생기면 신속하게 자료를 지원받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북 큐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료 지원이지? 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적인 북 큐레이션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자료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 〈책표지를 바라보는 것도 독서다〉



▲ 교사 추천 북큐레이션



▲ 기념행사를 위한 북큐레이션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연계 도서 정보는 다양한 주제로 접근해야 효과적이다.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북 큐레이션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청솔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북 큐레이션 운영이 독서지도에 효과적인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장기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루함을 빨리 느낄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주 내지 2주 정도의 주기를 반복하여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전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독서가 위로다' 라는 주제로 사이토 다카시의 "책장을 바라보는 것도 독서다" 라는 글을 인용한 〈책표지를 바라보는 것도 독서다〉라는 타이틀의 북 큐레이션을 시작했다. 책표지를 하나하나씩 붙여넣기 하는 작업은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갔지만, 급식실 입구에 전시하고 보니 상당히 괜찮아 보였다. 전시된 책표지를 보고 책을 찾으러 오는 학생이 하나둘 생겨났으며 책 제목만 암기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우기는 학생도 생겨나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도서실에 와서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망설이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 나는 주저 없이 말한다. "도서실 밖에 전시해

둔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가져와 볼래?" 이렇게 권해준 책 한 권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나만의 착각을 하면서 혼자 뿌듯해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보낸다. 교과과정과 연계한 도서, 교사와 학생이 추천해 주는 도서,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작업한 책 줄거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 등 주기에 맞추어 북 큐레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 걸음 두 걸음 학생들과 함께 '나를 완성해가는 독서 생활 더하기' 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 독서동아리 추천 북큐레이션



▲ 학생추천 북큐레이션



▲ 주제별 북큐레이션

신간 북 큐레이션 도서 목록

서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
삼국지는 어쩌다 세상을 보는 창이 됐을까	페즐	생각의 창	2021
중학생이 쓴 Isla walker	장서연	생각 나눔	2021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김영숙	휴머니스트	2021
달러구트 꿈 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	이미예	팩토리 나인	2021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인플루엔셜	2021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어크로스	2021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옆의자	2021
질서 너머	조던 B. 피터슨	웅진지식하우스	2021
곁에 있다는 것	김중미	창비	2021
물고기에게 물에 관해 묻는 일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	뒤란	2021

북 큐레이션 구성 사례

북 큐레이션 별 구성 사례	주요 내용
〈책표지를 바라보는 것도 독서다〉, 책 표지 독서	정기 구입 도서의 책 표지를 프린팅하여 책 소개 및 감상 '독서가 위로다' 라는 주제 설정
교사 추천 도서	청솔중학교 선생님이 소개하는 책을 전시하여 홍보
최신간 도서 안내	최신간 도서를 전시, 소개하여 독서 흥미 유발
독서동아리 학생들의 책 추천	북토피아 자율독서동아리 회원의 '책 내용 4컷 그림' 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여 책 소개 및 홍보
주제별 신착 도서	신착 도서를 격주 간격으로 주제별로 전시 및 홍보
학생 추천 도서	'책 내용 광고 표지 만들기' 활동의 작품을 전시, 책 내용 소개

이규찬 웹툰 작가의

별

아이가 클수록 무거워지는 건 어깨가 아니라 팔이었습니다.

이규찬 웹툰작가 Contact : lkc001@naver.com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당신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 척 팔라닉(미국 출생 소설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청소년 특화 공간, 북카페 조성 등
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

경기성남교육도서관(관장 이철희)은 올해 1월부터 '성남시 생활복합화시설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해 12월 1일 재개관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반영한 리모델링 공사로 열린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용자 접근성이 좋은 1층에는 어린이실, 북카페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강의실 배치로 소통과 휴식,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공간으로 확대했다. 2층은 문헌정보실로 공간마다 다양한 열람석을 배치하여 자유로운 책 읽기가 가능한 지식문화 공간으로 꾸몄다. 3층에는 연속간행물과 전자정보실을 통합한 공간 재배치로 이용자 동선을 최소화하였으며 청소년 특화공간을 신설하여 웹툰, 토론 및 소모임, 1인 학습, 가상현실 체험과 보드게임 등을 지원한다. 1층 어울림공간 '뜰'과 2층 자료공간 '지혜', 3층 정보공간 '바다' 및 청소년공간 '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은 어울림공간 '뜰'을 제외하고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 1층 어린이공간'빛'



▲ 1층 어울림공간'뜰'



▲ 2층 자료공간'지혜'

청소년 학부모 아카데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관장 노재금)은 「청소년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경기도 화성 · 오산 지역 중 ·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창의융합인재를 위한 소통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 아카데미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학교를 통해 홍보하여 많은 학교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창의융합인재를 위한 자녀의 재능 발견하기, 다양한 학생들의 미래 희망직업과 실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 등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이루었으며, 소통의 방법, 행복한 소통으로 언어습관의 대물림 체험하기, 공감의 방법,

갈등의 해소 등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위한 실생활의 예시와 실습을 함께 했다.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강의가 더욱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을 모아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를 둔 교육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아카데미로 교육 가치관 확립과 부모-자녀의 건강한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의 명화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경기김포교육도서관



▲ 명화 전시(두일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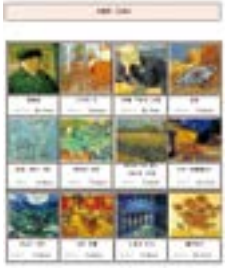
경기김포교육도서관(관장 손복순)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도서관 세계 명화 순회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김포 · 고양지역 학교도서관의 문화예술 교육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김포교육도서관의 특화 자료인 세계 명화를 작가별, 시대별로 구성된 10점 내외의 세트로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세계 명화 세트는 고흐, 르느와르, 모네 등의 작가별 세트와 인상주의, 르네상스, 조선시대 등 사조별 · 시대별 세트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학교에 학교별로 2개월씩 연간 총 5회, 최대 50점의 명화를 순회 전시하고 있다. 김포교육도서관은 명화 대출 서비스 외에도 팝업북 · 빅북 순회 대출 서비스, 온가족 독서동아리, 한 학기 한 책 읽기, 진로 독서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 명화 전시 (하성고등학교)



▲ 명화 전시 (김포교육도서관 관내)



▲ 명화목록1



▲ 명화목록2



수많은 사람,
수많은 책과 함께 흘러가며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나누는

나는
도서관입니다.

명혜권 「나는 도서관입니다」 중에서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

	바	둑	기	사		원	자	력
	이			회	화		율	
갤	러	리		적		숙	주	
	스			거			행	적
		실	마	리				대
		례		두				적
	오		인	기	투	표		
	페		터			정	령	
클	라	리	넷					

경기교육도서관–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 협력체계





학생중심 책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교육도서관이 함께 합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031)240-4031	경기포천교육도서관	031)531-8751	경기화성교육도서관	031)369-5731
경기평택교육도서관	031)667-4207	경기김포교육도서관	031)998-3538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031)827-9514
경기광주교육도서관	031)768-6923	경기과천교육도서관	02)3677-036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031)259-1045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031)882-1066	경기성남교육도서관	031)730-3564		

발간등록번호 71-7530463-000001-08
ISSN 1976-8907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21. 겨울호 | Vol. 59

경기교육도서관 사서들이 만드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도서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e-book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ib.goe.go.kr/gg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e-독서정보지